

독립논단

가족 사회자본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 한·일 양국 간 비교 분석*

박희봉 · 이희창** · 강제상 · 강휘원 · 남창우 · 임명수 · 전지용 · 김태순 · 전경일

주제어 : 가족 사회자본, 단체참여, 정치참여



초 록

본 연구는 가족 사회자본이 단체참여와 정치참여 등 사회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단체참여와 정치참여에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족 사회자본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즉 사회자본 유형을 강한 연결과 느슨한 연결, 수직적 조직과 수평적 조직, 조직에 대한 신뢰와 개인에 대한 신뢰, 동질적 조직과 이질적 조직 등 발생 특성에 의해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사회자본의 성격이 어떤가에 따라 사회참여 역시 참여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과 일본 각각 3개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설문을 바탕으로 비교한 결과, 가족 사회자본은 사회참여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가족 사회자본과 사회참여 유형의 관계가 공통점도 있었고 차이점도 나타났다. 이 연구는 어떤 가족 사회자본 유형이 어떤 사회참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朴熙峯 : 미국 Temple University에서 정치학박사(1994)를 받고, 현재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임. 주요 관심분야는 행정문화, 조직이론, 정부개혁 등이다. (hbpark@cau.ac.kr)

李羲昌 : 한양대에서 행정학박사(1999)를 받고, 현재 경북대 복지행정과 조교수로 재직 중임. 주요 관심분야는 복지행정, 산업정책, 지방행정 등이다. (hcllee@kyungbok.ac.kr)

姜齊相 :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1995)를 받고, 현재 경희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임. 주요 관심분야는 조직, 인사, 정부혁신 등이다. (jskang@khu.ac.kr)

姜輝遠 : 미국 Georgia State University에서 정치학박사(1995)를 받고, 현재 평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임. 주요 관심 분야는 정보정책, 미국정치, 방법론 등이다. (hwkang@ptu.ac.kr)

南昌祐 : 동국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8), 현재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임. 주요 관심 분야는 재무행정, 지방재정, 경제행정 등이다. (ncw@knu.ac.kr)

I. 서론

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사회자본에 관한 정의에 따라 사회자본은 ① 인간 관계에서 형성되고, ② 공식적·제도화된 구조에 의해 촉진 또는 쇠퇴될 수 있는, ③ 무형자산으로서, ④ 사회구조의 측면이라는 요소와 그 구조 내에서 특정 행위자의 특정 행동을 촉진시킨다는 공통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으로 사회자본은 특정한 조직, 집단,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목표를 실현하는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힘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Potapchuk, Croker 및 Schechter, Jr.(1997: 136)는 “사회자본이 모든 수준의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민 하부구조(civic infrastructure)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사회자본이 구성원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미덕 또는 정신을 장려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즉 사회자본이 내부적 지속성을 제공하여 집단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건전한 지역사회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Welsch & Heying, 1999; Walls & Schechter, 1998a/b; Potapchuk, Crocker, & Schechter, Jr., 1997).

사회자본이 인간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인적자본과 물리적 생산 활동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회자본 형성의 1차적인 장소는 가정이다. OECD(2001: 45-46) 역시 “가족을 사회자본의 기초적 형성 지역으로 명명” 하면서, 가족 사회자본의 중요성 및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르면 가족은 규범과 사회적 연결을 형성하고, 가족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직접적인 가족 테두리 외부와의 신뢰 발전과 협동적 태도를 기르고, 학습을 위한 일차적인 자원일 뿐만 아니라 공식적 교육에 있어서의 성공을 위한 잠재적인 자극제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 사회자본의 특성상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Newton(1999)이 지적한 바와 같이 폐쇄적이거나 수직적인 네트워크는 시민사회에 부정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종친회, 동창회, 친목회 등의 동질적, 수직적 네트워크가 조직 내부 구성원만의 사회자본을 양산하겠지만 국가사회 전체에 대한 사회자본 축적에는 부정적일 수도 있다. 이들만의 폐쇄적 네트워크의 배타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사회자본의 축적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한 가족 연결(bonding)은 더 넓은 교량적(bridging) 관계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林明洙 : 일본 동북대학에서 일본 근대문학을 전공하고, 현재 대전대학교 일본학과 전임강사로 재직 중임. 주요 관심분야는 일본 근·현대문학이다.
(ims5409@hanmail.net)

全志鎔 : 미국 George Washington University에서 교육학박사(1999)를 받고, 현재 경북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로 재직 중임. 주요 관심분야는 교육행정, 교육방법 등이다.
(jychun@kyungbok.ac.kr)

金泰順 : 건국대에서 문학박사(2003)를 받고, 건국대학교 국문학과에 출강 중임. 주요 관심분야는 한국 근·현대소설이다.
(taeoonkim@hanmail.net)

全京一 : 단국대에서 법학박사(1998)를 받고, 단국대학교 법학과에 출강 중임. 주요 관심분야는 국제환경법, 공법 등이다.
(inomosg@chollian.net)

* 본 연구는 2008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KRF-2008-B00050)

** 교신저자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가족 사회자본이 단체 참여와 정치참여 등 사회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단체참여와 정치참여에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족 사회자본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즉 사회자본 유형을 강한 연결과 느슨한 연결, 수직적 조직과 수평적 조직, 조직에 대한 신뢰와 개인에 대한 신뢰, 동질적 조직과 이질적 조직 등 발생 특성에 의해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사회자본의 성격이 어떤가에 따라, 사회참여 역시 참여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 가족 사회자본이 폐쇄적인 가족으로부터 발생된 사회자본이라는 전통적 이론에 따르면 수직적 단체참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수평적 단체참여 및 정치참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만일 실제 분석에서 전통적인 이론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그 이유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을 비교, 분석하였다. 서구 중심으로 연구되어온 연구에 탈피하여 한국과 일본의 사회자본과 단체참여, 정치참여 간의 관계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내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은 정치·행정문화의 동질성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에 적절한 국가일 뿐만 아니라 비교연구를 통한 깊이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II. 가족 사회자본과 사회참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

가족은 사회자본의 근원이며, 사회활동의 기반을 제공한다.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여타 조직과는 달리 사회자본의 기본적 속성으로 분류되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가 자연스레 형성되는 조직단위이다(Flavin, 2004: 210). 이러한 가족 사회자본은 다음 2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가족은 개인이 사회화되는 중요한 경로이다. 가족 구성원간 관계를 통해 규범, 신뢰, 상호호혜에 대한 인식을 터득하게 된다. 결혼과 가족관계는 사회규범을 지키도록 하는 사회적 결속력을 높이는데 기반이 된다(Laub 등, 1998; Li 등, 2000). 둘째, 가족은 상대방에 대한 경계를 줄이고 행위자별 보상에 대한 관심을 덜 갖게 한다. 이를 통해 친인척 관계를 넘어선 사람들과의 관계형성을 가능케 한다(Winter, 2000: 6). 이것은 가족 사회자본이 가족을 넘어선

공동체, 일반사회의 사회자본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사회자본의 일반이론이 가족에도 작용될 수 있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가족 사회자본과 사회참여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사회자본과 사회참여의 관계 진단과 함께 가족 사회자본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사회자본과 사회참여

서구의 연구자들은 사회자본과 사회단체 활동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정한다. Tocqueville(1984)은 미국사회가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다양한 사회단체에 의해 민주적 규범과 신뢰, 협동의 미덕이 형성되어 시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구성된 공동의 욕구와 목표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Almond와 Verba(Civic Culture) 또한 사회단체 구성원들은 사회단체 참여로 인해 협동 능력 뿐 아니라 집단적 행위를 위한 공유된 책임감을 터득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믿음, 정치참여, 실제적 시민의 경쟁력 등을 보다 잘 발휘한다고 했다(Putnam, 1993: 90). Putnam(1993/1995)은 다수의 연구에서 사회단체 가입이 사회자본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Ostrom도 시민참여의 네트워크가 상호작용의 엄격한 규범을 증진시킨다고 함으로써(Newton, 1999: 6-7) 사회단체 가입이 사회자본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이와 같이 서구사회에서 사회자본과 사회단체 활동을 연결시키는 이유는 사회자본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Coleman(1988: 100-101)이 주장하듯이 사회자본은 물질 자본, 인적 자본과 달리 인간간의 관계 내에 존재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조직이 내부적으로 조직구성원들을 민주적 문화 내에서 사회화시키고 신뢰와 협동의 필요성을 교육시킨다는 것과, 외부적으로는 시민을 정치체제 및 기관과 연결하고, 이익을 집단화하여 표현하며, 다원화 정책을 구성하는 다양한 경쟁 또는 협력 집단을 제공한다는 것에서(Newton, 1999: 11) 사회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의 사회자본이 증가한다는 논리를 찾을 수 있다.

사회자본과 사회단체 참여의 관계에 있어서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Putnam(1993)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세 가지 중요한 단체는 노동조합, 교회, 그리고 정당이지만 교회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시민성과 역의 관계를 갖는다고 한다. 시민사회는 종교적 믿음에 의한 관계가 세속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정당가입 또한 시민성과 상관이 있기도 하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당이 집단 이기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Putnam, 1993: 109). 즉 Putnam(1993: 115)은 사회자본과 관련된 시민단체는 수직적인 사회단체가 아니라 수평적인 사회단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또한 일부 자발적 조직은 사실 자발적이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폐쇄형 노동조합은 강제적이고, 변호사 및 의사협회 등도 자발적이지 않다(Newton, 1999: 10). 그리고 최근에 강한 외부효과가 있으나 내부효과는 약한 조직이 늘고 있다. 즉 구성원들이 연간 회비만을 내고 형식적 참여를 하기 때문이다(Newton, 1999: 12).

이상의 사회단체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사회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단체가 과연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가 중심과제가 된다. 서구사회는 일차적으로 작고, 집중적이며, 배타적인 면대면 특징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Tocqueville, Durkheim, J. S. Mill, Toennies, Weber, Simmel, 그리고 Putnam 등과 같은 저자들에 의해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 이차 집단적 사회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Newton, 1999: 15). 이러한 사회에서의 사회자본은 우선 사회단체가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즉 거의 대부분의 서구사회에서 발견되는 자발적 조직은 가족, 시장, 국가 등과 다른, 사회의 일부분으로(Newton, 1999: 10) 그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집단적인 상품,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로 규정할 수 있다. Coleman(1988)이 사회자본을 사회적 행동을 촉진시키고, 어떤 일을 되게 하는 사회구조 및 사회관계의 특성으로 정의됨을 강조한 것은 조직구성원 자신의 실용적 이익을 위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자발적 사회단체 조직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실제로 Tocqueville (1968) 모델의 요체는 자발적 조직이 사회자본의 신뢰 및 상호작용을 양산하고, 사회자본이 상향적이라는 것이다(Newton, 1999: 16-17). 즉 사회자본을 양산하는 조직은 민주적인 자발성을 기본으로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자본은 시민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서구사회는 수직적 사회단체보다 수평적 사회단체의 활동이 큰 반면, 한국은 수직적 사회단체가 보다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Fukuyama (1995)가 지적한 것처럼 한국은 가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발적인 단체는 약한 것이 사실이다. 수직적 사회단체가 사회자본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서구의 전통적 사회자본이론에 비추어 본다면, 한

국을 위시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중시되는 가족 사회자본은 시민사회발전에 긍정적인 가능성이 낮다. 그렇지만 가족 사회자본과 마찬가지로 수직적 사회단체로 분류될 수 있는 한국 사회단체가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과, 수직적 사회단체가 수평적 사회단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 시민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친목회, 동창회, 종교단체가 수평적 조직이 아니라는 면을 인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조직들이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고, 이들 역시 공동체 발전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박희봉, 2002). 한국 사회에 개인주의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수직적 멤버십을 강조하고 있는 단체들이 구성원 개개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구성원의 책임을 필요로 하는 수평적 사회단체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과, 때에 따라서는 수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단체도 또 다른 측면의 긍정적인 사회자본 형성에 도움을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자본이 민주주의와 정치참여를 증진시킨다는 논의 역시 다수 존재한다. 사회자본은 공유된 가치로서의 역할을 하여 개인을 함께 묶어주는 시민사회의 접합제로서, 집단이익을 위한 협동을 가능하게 하는 공식·비공식 자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행동만으로 해결될 수 없거나 국가의 규제 또는 간접 민주주의의 공식적인 과정에 의해 해결될 수도 없는 집단행동 문제가 사회자본에 의해 해결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Almond와 Verba(1963)가 지적했듯이 사회자본 수준이 높게 형성된 사회단체 구성원들이 정치적 사고, 사회적 믿음, 정치참여, 그리고 “실제적 시민의 경쟁력” 등을 보다 잘 발휘한다고 했다. 시민조직에의 참여가 협동의 능력 뿐 아니라 집단적 행위를 위한 공유된 책임감을 터득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자본은 집단행동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을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을 민주주의 건설에 참여를 하도록 지휘하는 가교(gear)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Krishna, 2001).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자본은 전통적인 감각에서 정치참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Putnam, 1995).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관계를 연결하는 단체생활이 높은 투표율, 공공이슈에 대한 인식 증가, 대의적 정부 신뢰 증가 등의 측면에 가시적인 역할을 한다고 한다(Kaufman, 1999: 1301). Tocqueville(1984) 이래 미국의 전통적인 학계에서는 사회단체가 정치적 무관심 및 국가에 대한 수동적인 의존 등의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반사적 역

할을 하여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한다. 사회집단이 자발적 행위를 통해 지역사회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정부기관 또는 기업의 역할까지 담당 또는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Boix와 Posner(1998)는 사회자본이 결국 시민의 선거로 선출된 정책담당자들에게 정치적 책임성을 높은 수준에서 묻게 됨에 따라 전체 사회의 정치적 책임성을 증가시키고, 정부성과와 제도의 효과적인 작동을 촉진시킨다고 한다.

2. 가족 사회자본에 대한 선행연구

가족 사회자본 선행연구는 부모-자녀간 상호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친척이나 다른 성인, 그리고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역시 자녀의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이정선, 2001: 260) 가장 중심적인 역할 수행자는 부모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장기 가족구조와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부모생존 여부, 부모의 사회적 지위, 부모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이러한 요인이 우수할수록 자녀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Croll, 2004; Israel 등, 2001; Sun, 1999).

자녀성장에 있어 부모의 역할 강조는 주로 심리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 Wright 등(2001)에 따르면 가족 사회자본은 자녀의 불손한 태도를 완화시키고, 자녀의 전반적인 생활에 긍정적인 효과 가져온다고 한다. Amato와 Booth(1997), Coleman(1990)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심리적 안정 및 자녀에 대한 관심은 가족의 지속적인 동질감 확립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또한 Coleman(1988), Coleman과 Hoffer(1987)는 가족 사회자본이 자녀 학업 성취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한다. Coleman은 부모의 자녀 학교활동 관여, 자녀의 친구 부모와의 네트워크, 자녀와의 학교생활 논의 등은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장치로 기능한다고 한다. Teachman, Paasch, Carver(1997)의 연구 역시 가족 사회자본이 풍부할수록 자녀의 중퇴율은 낮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Fursteinberg과 Hughes(1995)도 가족간 관계가 원활하고, 자녀 교육지원이 많을수록 자녀의 고교 졸업률, 대학 재학률, 사회적 지위 등 자녀의 미래방향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가족 사회자본은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 밖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Bubolz(2001)는 가족간 관계와 태도는 가족 외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즉 가족 사회자본이 어떻게 형성되

있는가에 따라 교육, 직장, 지역, 사회, 종교 조직 등과 같은 외부체제와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Wright 등(2001)은 자녀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많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성장 후 사회적 연결망 형성과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많은 학습을 받게 된다고 한다.

Croll(2004)은 더 나아가 가족 사회자본이 사회참여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1994-2000년에 걸친 영국의 11세-16세 학생 763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 사회자본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가족 사회자본이 사회자본 일반이론과 마찬가지로 과연 단체참여 및 정치참여와 긍정적 관계를 지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분석결과 자녀학습지도 및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단체참여(단체가입, 단체활동) 및 정치참여(투표참여)와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관계수는 매우 낮았으며, 그 정도에 있어서는 단체참여(상관계수 0.10-0.11)보다 정치참여(상관계수 0.03-0.05)가 더욱 낮게 나타났다. 또한 부와 모를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에서 자녀 대화와 정치참여(투표참여)의 경우 부(父)는 正(0.03)의 관계를 지니나 모(母)는 負(-0.01)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추가적으로 분석된 사회지위와 단체참여 관계에 있어서는 비교적 높은 正(0.16-0.23)의 관계를 보였다. 사회자본과 사회참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회피하게나마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가족 사회자본이 ① 가족의 친근감과 정서적 동질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② 성장기 가족관계가 성장 후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③ 단체참여와 정치참여를 비롯한 사회참여와 관련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보완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첫째, 가족 사회자본 연구가 지나치게 가족 내적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자녀의 교육성공에 한정되어 있다(이재훈·김경근, 2007; Croll, 2004; Israel 등, 2001; Sun, 1999). 하지만 가족의 기능은 가족 내적 요인에만 한정될 정도로 그리 단순한 것은 아니다. Meyers(2003: 88)의 주장대로 건전한 가족관계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모든 조직과 사회전체로 파급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성장과정에 따른 사회적 역할 차이가 이를 반영한다. 따라서 기존의 가족 내적 연구를 넘어 사회 전반적인 가족 사회자본의 파급효과 측정이 필요하다. Croll(2004)이 비록 이러한 연구를 시도하고는 있으나 교육성공과의 관련성 진단의 일부로 극히 제한된 변수만을 이용한 부분적 연구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 사

회자본이 공동체적 성격을 지닌 단체 활동과 국가 전반에 걸친 정치참여를 비롯한 사회참여에 어떤 파급력을 갖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성장과정별 가족 사회자본을 망라한 통합연구가 부족하다. 선행연구는 대부분 성장기 아동과 그 부모와의 관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모를 지원자, 아동을 수혜자로 하여 지원자인 부모의 역할 수준별 아동의 성장활동에만 초점 맞춰 있다. 하지만 가족 사회자본의 결과를 비단 아동에게만 국한할 필요는 없다. 지원자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영향력 진단 또한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성인의 행태를 좌우하는 가치관은 어린시절에 대부분 형성된다고 한다(Ingelhart, 1997). 성장 후 바뀔 수는 있으나 기본 성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관 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성장기 가족관계와 현재의 가족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전반적인 효과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 사회자본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가 부족하다. 가족관계는 국가별 문화의 차이를 반영한다. 특정 국가만의 연구로는 가족 사회자본이 지니는 전반적인 특성 파악에 한계가 있다. 특히 선행연구는 대부분 서구 학자들을 중심으로 시도된 것이다. 따라서 서구사회와 비교될 수 있는 연구대상 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 가족 사회자본의 특성파악 차원에서 우리와 동일한 문화권을 형성하면서도 정치제도와 시민사회 발전수준이 상이한 일본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이들 양국이 기존의 서구 이론과는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1980년대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과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성숙된 정치문화를 보이는 일본과 시민사회가 여전히 정부감시에 집중된 한국(송경재, 2007: 220)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구체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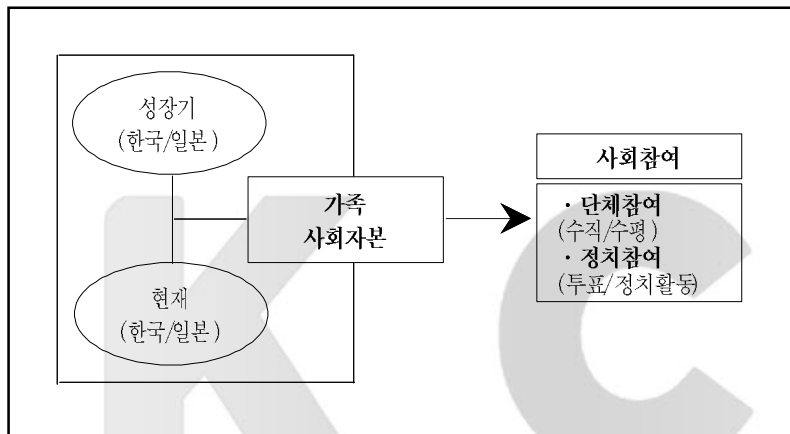
III. 분석틀

1. 연구모형 및 가설

이상의 논의는 가족 사회자본이 단체참여와 정치참여를 포함한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기존연구는 가족 사회자본의 전반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뿐 성장 과정별 영향에 대한 논의는 부

족하다. 개인의 행태는 성장기의 경험과 현재의 생활여건이 동시에 반영되어 표출된다. 이는 개인의 행위를 좌우하는 가치관이 어린시절 생활경험에 크게 좌우된다는 Inglehart(1997)의 주장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사회참여 활동이 과거 성장기의 경험과 현재 가족관계적 요소가 동시에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합모형을 설정한다. 이를 통해 이들 각각의 상대적 영향력을 동시에 분석코자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코자 하는 기본적 연구과제는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이러한 모형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가족 사회자본 특성은 어떠하며, 이러한 가족 사회자본이 단체참여와 정치참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경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가족 사회자본은 유형별(성장기/현재) 연계성을 지닐 것이다. 즉 성장기에 경험한 가족 사회자본에 따라 현재의 개인속성과 가족관계 여건은 달라질 것이다.

가설 2: 가족 사회자본은 단체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성장기와 현재의 가족 사회자본이 풍부할수록 단체참여는 높을 것이다.

가설 3: 가족 사회자본은 정치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성장기와 현재의 가족 사회자본이 풍부할수록 정치참여는 높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의 일부는 단체참여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나타날 것이다.

2.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

가족사회자본의 효과 측정 및 분석을 위한 변수는 기존 연구에서 쟁점이 되고,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되는 변수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가족 사회자본은 성장기와 현재의 가족여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상호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단일 항목으로 구성된 부모생존을 제외한 23개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설정된 의도대로 성장기와 현재가 구분되면서 5개 요인으로 정확히 분류되었다. 이에 따라 20세 이전의 성장기 가족 사회자본 변수에는 ① 부모생존 여부, ② 부모관계, ③ 부모지위(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하였고, 현재의 가족 사회자본 변수는 ① 가족신뢰, ② 자녀교육, ③ 가족행사 참여, ④ 가족관계를 포함하였다.

종속변수로 활용된 사회참여는 단체참여와 정치참여로 구분하고 ① 단체참여¹⁾에는 수직적 단체참여와 수평적 단체참여, ② 정치참여²⁾에는 투표참여와 정치활동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응답자 속성에 따른 영향력 통제를 위해 성, 연령, 학력, 소득, 종교가 통제변수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 이용된 변수 및 측정 설문항목은 <표 1>과 같다.

<표 1> 측정변수 및 측정항목³⁾

영역	변수	측 정 항 목	
가족 사회 자본	성장기 (20세이전)	부모생존	20세가 될 때까지 부모생존 여부 (생존 1, 부재 0)
		부모관계	부모와의 대화, 부모에게 받은 사랑, 부모의 교육 관심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믿음과 이해 정도, 자녀위한 부모 여가시간 할애 정도(5점 척도)
		부모지위	부모의 사회적 지위, 부모의 경제력 (5점 척도)
	현재	가족신뢰	부모신뢰, 형제신뢰, 친척신뢰 (5점 척도)
		자녀교육	자녀 학교생활 관심, 자녀 학업성적 관심, 자녀 과외수업 관심, 자녀학업 지도, 자녀 친한 친구 이름 인지, 자녀 학교운영 참여 경험(5 점 척도)
		가족행사 참여	친가(친정) 각종 가족행사 참여, 처가(시댁) 각종 가족행사 참여 (5점 척도)
가족관계	부부간 대화시간, 가정 내 역할 상의, 가정 내 어려움 협력 정도 (5점 척도)		
사회 참여	단체 참여	수직단체	종친회 참여, 향우회 참여, 동문회 참여 정도 (5 점 척도)
		수평단체	봉사·서비스단체 참여, 지역시민단체 참여, 전국적 시민단체 참여, 직능단체·학회·협회 참여 정도 (5점 척도)
	정치 참여	투표참여	대통령(수상), 국회의원, 단체장 선거에의 참여 정도 (5점 척도)
		정치활동	정치현금, 정치 기사 송고, 합법적 데모 참여, 비합법적 데모 참여 (5점 척도)
개인속성		성, 연령, 학력, 소득, 종교	

1) 사회단체는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일괄적으로 취급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단체 참여를 수직적 사회단체와 수평적 사회단체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수직적 사회단체와 수평적 사회단체의 구분은 기업의 범위가 제한되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 실제로 이러한 분류 기준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서도 꽤 요인으로 확인히 구분되었다. 수직적 단체참여는 종친회, 향우회, 동문회 등 3개 단체, 수평적 단체참여는 봉사·서비스단체, 지역시민단체, 전국적 시민단체, 직능단체 학회·협회 참여 정도 등 6개 사회단체에 대한 참여빈도를 Likert 5점 척도로 측정 평균값을 산정하였다.

2) 정치참여는 소극적 적극적 정치참여를 기준으로 투표참여와 정치활동으로 구분하였다. 투표참여는 최근의 대통령(수상)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 참여하였는지를 질문하여 평균값을 산정하였다. 정치활동은 정치현금, 정치관련 기사 송고, 합법적 데모 참여, 비합법적 데모 참여 등 4가지 정치활동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 평균값을 산정하였다. 여기에서 이론상으로는 합법적 정치참여와 비합법적 정치참여를 분류하여 분석하는 일차적자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 합법적 정치참여와 비합법적 정치참여를 구분하기가 어려워 모두 정치활동 변수로 통합하였다. 실제로 정치활동 변수는 요인분석 결과 단일요인으로 분류되었고, 특히 합법적 데모 참여와 비합법적 데모 참여의 경우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 이를 모두를 하나의 변수로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3) 변수간 다중공선성 제거 차원에서 실시된 가족 사회자본과 변수별 동일요인 확인차원에서 실시된 사회참여 변수 모두 도출된 개별 요인들의 신뢰계수 Cronbach's α 가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반의 변수별 신뢰계수를 보면 가족 사회자본의 부모관계 0.790/802, 부모지위 0.826/

3. 샘플링

본 연구의 설문을 위한 모집단은 한국과 일본 대도시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이다. 설문지 배부를 위한 도시선택은 이들 양국의 수도와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를 선정하였다. 즉 한국은 서울과 영호남 지역인 부산과 광주를 선택하였고, 일본은 동경과 전통성을 보유하는 오사카/교토, 일본의 번두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센다이를 선택했다

<표 2> 지역별 설문교부 및 분석 내역

구 분	교부총량	회수총량	회수율(%)	
한국	서울	600	482	80.3
	부산	500	409	81.8
	광주	500	298	59.6
일본	동경	500	241	48.2
	오사카	500	292	58.4
	센다이	500	263	52.6
합 계	1,985/3,100		64.0	

설문조사는 2007년 3월 5일부터 2007년 7월 30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문항수는 총 52개로 구성되었고, 영역별 요인분석을 통하여 39개 항목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 중 종속변수 구성에 필요한 항목은 통 12개로 사회참여의 수직단체 참여 항목이 3개, 수평단체 참여 항목이 4개, 투표 참여 항목이 1개, 정치활동 항목이 4개로 되어 있다. 독립변수인 가족사회 자본은 부모생존 항목이 1개, 부모관계 항목 5개, 부모지위 항목 2개, 가족 신뢰 항목 3개, 자녀교육 항목 6개, 가족행사참여 항목 2개, 가족관계 항목이 3개로 되어 있다. 그 외 통제변수에는 기존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성, 연령, 학력, 소득, 종교 등 5개 항목이 이용되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Likert 5점 척도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교부는 선택된 도시지역에 대해 500부를 기본으로 하였다. 다만 서울은 여타 지역과의 인구 차이를 고려하여 100부의 설문지를 추가로 배포하였다. 설문지 배포는 선정된 지역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의 가구에 1부씩 배부하여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가족생활에 있어 가족 대부분

854, 가족신뢰 0.785/603, 자녀교육 0.817/0.953, 가족행사 참여 0.803/941, 가족관계 0.819/83이고, 사회참여의 수직단체 0.636/0.580, 수평단체 0.614/0.536, 정치활동 0.897/90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족사회자본은 단일항목의 부모생존과 함께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들 5개 요인의 요인점수를 분석에 활용하고, 종속변수인 사회참여 변수는 변수별 평균을 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의 주관적인 성향이 비슷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구를 단위로 1부씩 배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Krishna, 2002)에 의거하였다. 본 연구 설문 대상자의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배경은 <표 3>에 나타나 있다.

<표 3> 설문대상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구 분		한국	일본	구 분		한국	일본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성별	남성	465(40.8)	236(31.7)	연령	30대	329(27.7)	234(29.4)	
	여성	직장여성	299(26.2)		251(33.8)	40대	576(48.4)	301(37.8)
		전업주부	376(33.0)		257(34.5)	50대 이상	284(23.9)	261(32.8)
학력	중졸이하	72 (6.1)	13 (1.6)	소득	저소득	238(20.1)	50 (6.8)	
	고졸	478(40.2)	324(42.6)		중소득	중하	344(29.0)	224(30.6)
	전문대졸	166(14.0)	144(18.2)			중상	399(33.7)	303(41.3)
	대졸 이상	472(39.7)	311(39.2)		고소득	204(17.2)	156(21.3)	
종교	종교 있음	752(62.4)	390(49.0)	혼인 상태	정상가정	1121(94.3)	713(90.1)	
	종교 없음	435(36.6)	406(51.0)		이혼/사별 등	68 (5.7)	78 (9.9)	

참고 1) 소득은 국가별 통화단위가 달라 중간값을 기준으로 저, 중, 고소득으로 분류함
 2) 중소득은 한국 200-500만원(중상 300-500만원), 일본 20-50만엔(중상 30-50만엔)

설문회수 결과는 남성, 직장여성, 전업주부가 비교적 균형 있는 응답을 나타냈으며, 연령은 40대가 다소 많고, 30대와 50대 이상이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학력에 있어서는 고졸과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일본 20-50만엔) 사이의 응답자가 전체 62.7%(일본 71.9%)를 차지하고 있다. 종교는 한국은 62.4%, 일본은 49.0%가 있다고 응답했고, 혼인상태에 있어서는 한·일 모두 정상가정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인구학적 기본통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다만, 성별 구분에 있어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는데, 이것은 직장여성과 전업주부의 사회참여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평균 사회참여 수준을 균형 있게 추출하여 남성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IV. 분석 결과

1. 가족 사회자본의 특성

가족 사회자본이 성장 후의 개인속성 및 가족관계 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개인속성과의 관계는 학력과 소득(월평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 중에서 가족 사회자본과 가장 관련이 높은 것은 학력과 소득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료의 분석 결과, 가족 사회자본은 전반적으로 학력 및 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력과의 관계가 높다. 한국과 일본 모두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가족 사회자본 중에서는 부모관계가 여타 변수에 비해 학력과 소득 모두에서 보다 높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장기의 가족 사회자본이 개인의 사회적 기반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동시에 부모생존과 부모지위와 같은 가족 구조적 요인보다 부모와의 관계적 요인이 개인의 성장에 더욱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표 4> 성장기 가족 사회자본과 학력, 소득의 관계

구 분	한 국		일 본	
	학 력	소 득	학 력	소 득
부모생존	.174***	.071*	.246***	-.072
부모관계	.206***	.091**	.158***	.184***
부모지위	.210***	.081**	.244***	-.011

***p < .001, **p < .01, *p < .05

다음으로 성장기 가족 사회자본이 현재의 가족관계 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방법에 있어서는 상관관계분석 대신 성장기 가족 사회자본 수준별(고, 중, 저) 차이분석을 활용하였다. 이는 성장기와 현재 가족 사회자본 변수가 요인분석을 통해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즉 변수별 평균을 이용하면 상관관계는 구할 수 있으나 <표 6>이하 상관관계와 인과 관계에 활용된 요인점수와 그 값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이용지표의 일관성 차원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 <표 5>는 이러한 방법에 의거 분석된 한국과

일본의 분석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성장기 가족 사회자본과 현재 가족관계 여건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은 다소 차이를 나타낸다. 한국은 성장기 가족 사회자본이 높은 경우 현재 가족 여건의 평균이 모든 변수에 걸쳐 일관성 있게 높게 나타난다. 또한 모든 변수간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대부분의 변수간 관계에서 차이에 대한 유의성은 나타나고 있지만, 차이에 대한 정향이 뚜렷하지 않다. 특히 부모생존 변수의 경우에는 오히려 현재 가족여건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모관계나 부모지위 변수 역시 대체로 정(+)의 관계는 보이나 일관성이 부족하다.

<표 5> 성장기와 현재 가족 사회자본의 연계성

구 분	가족신뢰		자녀교육		가족행사참여		가족관계				
	평균	F(유의도)	평균	F(유의도)	평균	F(유의도)	평균	F(유의도)			
한국	부모 생존	유	4.08	11.62	3.72	33.99	3.97	31.22	3.89	36.49	
		무	3.93	(.001)	3.45	(.000)	3.67	(.000)	3.57	(.000)	
	부모 관계	저	3.73	67.02	3.40	63.15	3.65	31.60	3.53	66.51	
		중	4.00		3.56		3.86		3.72		
		고	4.34		3.99		4.16		4.20		
	부모 지위	저	3.94	17.78	3.52	24.70	3.81	10.76	3.64	25.07	
		중	4.06		3.68		3.92		3.87		
		고	4.31		3.99		4.17		4.14		
	일본	부모 생존	유	3.84	7.02	3.07	18.55	3.17	29.47	3.20	0.00
			무	4.02	(.008)	3.57	(.000)	3.77	(.000)	3.20	(.998)
		부모 관계	저	3.85	58.38	3.22	3.74	3.61	15.82	3.10	3.77
			중	3.74		3.07		3.11		3.18	
고			4.37	3.35		3.50		3.41			
부모 지위		저	3.52	29.43	3.71	12.68	2.90	12.33	2.95	5.40	
		중	3.98		3.17		3.25		3.25		
		고	3.88		3.34		3.53		3.20		

참고 1) 부모생존은 성장기(20세 이전) 부모생존 유, 무로 분류함
 2) 5점 척도로 조사된 여타 항목은 1,2 는 저 3 은 중 4,5 는 고로 재분류하여 이용함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공통점도 발견되고 있다. 성장기의 부모생존과 부모지위와 같은 구조적 요인보다 부모와의 관계적 요인이 현재 가족관계 여건과 보다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타 변수에 비해 집단 간 차이를 반영하는 F값의 크기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가족신뢰, 자녀교육, 가족행사참여, 가족관계 모두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일본 역시 가족신뢰와 가족관계에서 여타 변수에 비해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관계 수준별 일관성은 부족하나 다른 변수 보다는 상대적으로 분명해 보인다. 이것은 성장기 가족관계에 따라 현재의 가족관계 여건이 변화될 수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부모생존과 부모지위는 인위적인 노력과 무관하나 부모와의 관계는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부모관계와 현재 가족관계의 관련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다.

2. 가족 사회자본과 사회참여의 관계

가족 사회자본과 사회참여 관계는 변수별 매우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관계추이도 많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가족 사회자본이 성장기 가족 사회자본에 비해 사회참여와의 관련성이 보다 높다는 점에서는 국가별 공통점을 보인다. 우선 성장기 가족 사회자본과 사회참여와의 관계를 보면, 한국과 일본 모두 부모지위가 가장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단체참여와 정치활동에 정(+), 일본은 수직단체에는 부(-), 수평단체와 정치참여에는 정(+),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 외 부모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은 투표참여, 일본은 수직단체에 정(+), 관계를 지니고, 부모생존의 경우에는 일본에서만 단체참여에 부(-), 정치활동에 정(+),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현재 가족 사회자본과 사회참여의 관계를 보면, 가족참여가 양국 모두 상관계수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관계방향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가족신뢰는 방향은 일치하나 관계정도가 상이하고, 가족관계는 정치활동에서 차이를 보이며, 자녀교육은 관계정도나 방향 모두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일본의 가족 사회자본과 사회참여 관계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가족 사회자본과 정치참여의 간접적 관계를 제시하는 단체참여와 정치참여의 관계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한국은 수직적 단체참여, 수평적 단체참여, 투표참여가 가족 사회자본과 대체로 정(+), 관계를 보이거나 일본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한국은 수직적 단체참여와 수평적 단체참여가 높은 정(+), 상관관계를 보이고 이들 모두 투표참여 및 정치활동과 정(+), 관계를 지니나, 일본은 수평적 단체참여만이 정치활동과 정(+), 관계를 보이며 통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정치참

여 구성변수 간에도 부(-)의 방향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투표참여가 정치활동과 정(+)의 관계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표 6> 가족 사회자본과 사회참여 상관관계

구 분		한 국				일 본				
		수직단체	수평단체	투표참여	정치활동	수직단체	수평단체	투표참여	정치활동	
가족 사회 자본	성 장 기	부모생존	-.051	-.021	.028	.000	-.152***	-.104*	-.011	.142***
		부모관계	.039	.052	.110***	.003	.098*	.000	.043	-.014
		부모지위	.083*	.091*	-.058	.268***	-.147***	.122**	.150***	.223***
	현 세	가족신뢰	.046	.004	.132***	-.103***	.148***	.156***	.078*	-.058
		자녀교육	-.058	.057	.123***	.025	.173***	-.111*	-.110**	-.019
		가족참여	.023	.083*	.255***	-.126***	.262***	-.039	-.174***	-.339***
		가족관계	.149***	.028	.028	.099***	.056	.085	.135***	-.003
단체 참여	수직단체	-				-				
	수평단체	.452***	-			.087	-			
정치 참여	투표참여	.128***	.129***	-		-.040	.058	-		
	정치활동	.276***	.252***	-.018	-	-.039	.155***	.139***	-	

이 같은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가족 사회자본과 사회참여간 인과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인과관계 분석은 국가별 차이를 반영하여 한국과 일본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7>은 한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이다. 통제를 위해 응답자별 개인속성이 독립변수에 포함되었다. 수직적 단체참여의 경우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은 15.5%이며, F값은 11.239로 $p < 0.00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부모지위, 가족신뢰, 가족관계, 성, 연령, 소득, 종교 등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부모지위가 높고, 가족신뢰가 높으며, 가족관계가 친밀할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수직적 단체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소득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수직적 단체참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수평적 단체참여의 경우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은 4.0%이며 F 값은 2.454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부모지위, 가족 참여, 종교 등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부모지위가 높고, 가족행사 참여가 높으며, 종교가 있는 사람일수록 수평적

단체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투표참여의 경우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은 12.7%이며, F값은 12.539로 $p < 0.00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부모관계, 가족신뢰, 자녀교육, 가족참여, 학력, 소득, 종교 등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성장기 부모관계가 좋고, 현재 가족간 신뢰가 높으며,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을수록, 가족행사 참여가 많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투표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학력이 높을수록 투표참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족 사회자본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과 단체참여를 통한 간접적 영향을 동시에 살펴보기 위하여 보완적으로 시도된 분석결과에서는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이 13.4%이고, F값은 7.576으로 $p < 0.00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사회자본만을 기준으로 한 분석결과에 비해 종교의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졌다. 단체참여 중에서는 수직적 단체참여가 투표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한국 가족 사회자본과 사회참여 인과관계

구 분		단체참여		정치참여				
		수직단체	수평단체	투표참여		정치활동		
가족 사회 자본	성장기	부모생존	-.062	-.061	-.016	-.041	-.001	.027
		부모관계	.067	.051	.116***	.099**	-.011	-.032
		부모지위	.101**	.073*	-.051	-.036	.249***	.251***
	현재	가족신뢰	.069*	.008	.133***	.124***	-.088**	-.076*
		자녀교육	.031	.053	.139***	.123***	.056	.050
		가족참여	.048	.084*	.156***	.221***	-.110***	-.103**
		가족관계	.121***	.017	.023	-.003	.074*	.110***
단체 참여	수직단체				.124***		.147***	
	수평단체				.057		.149***	
개인 속성	성(남성1)	.290***	.042	.042	-.027	.146***	.109**	
	연령	.107**	.015	.036	-.032	.094**	.059	
	학력	.023	.047	-.066*	-.112***	.144***	.070	
	소득	-.070*	.060	.073*	.083*	-.107***	-.086*	
	종교(유1)	-.073**	.080*	.059*	.019	.078**	.081*	
R ²		.155	.040	.127	.134	.164	.232	
F		11.239***	2.454**	12.539***	7.576***	16.853***	14.720***	

*** $p < .001$, ** $p < .01$, * $p < .05$

정치참여의 경우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은 16.4%이며, F값은 16.853으로 $p < 0.00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부모지위, 가족 신뢰, 가족참여, 가족관계, 성, 연령, 학력, 소득, 종교 등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성장기 부모지위가 높고,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정치활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가족신뢰가 높고,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정치활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족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과 단체참여를 통한 간접적 영향을 동시에 살펴 보기 위하여 보완적으로 시도된 분석결과에서는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이 23.2%이고, F값은 14.720으로 $p < 0.00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사회자본만을 기준으로 한 분석결과에 비해 연령과 학력의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졌다. 단체참여 중에서는 수직적 단체참여와 수평적 단체참여 모두 정치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이상의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가족 사회자본은 대체로 단체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족신뢰와 가족관계는 수직적 단체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가족참여는 수평적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② 가족 사회자본은 투표참여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족신뢰, 자녀교육, 가족참여는 투표참여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가족관계는 수직적 단체참여를 통해 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③ 가족 사회자본은 정치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족관계는 정치활동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가족신뢰와 가족참여는 각각 수직적 단체참여와 수평적 단체참여를 통해 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단, 정치활동에 대한 가족신뢰와 가족관계의 직접적 영향력은 부(-)의 관계를 지닌다. ④ 사회참여에 대한 가족 사회자본의 유형별 영향력은 현재 가족 사회자본이 성장기 가족 사회자본에 비해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단, 정치활동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는 성장기 가족 사회자본의 부모지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표 8>은 일본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결과이다. 수직적 단체참여의 경우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은 43.8%이며, F값은 27.837로 $p < 0.001$ 수준

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부모지위, 가족신뢰, 자녀교육, 가족참여, 성, 연령, 학력, 소득, 종교 등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가족신뢰가 높고,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으며 가족행사 참여에 적극적이고, 연령이 높고, 학력이 높으며, 종교가 있는 사람일수록 수직적 단체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부모지위가 높고, 여성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수직적 단체참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8> 일본 가족 사회자본과 사회참여 인과관계

구 분		단체참여		정치참여				
		수직단체	수평단체	투표참여		정치활동		
가족 사회 자본	성 장 기	부모생존	-.067	-.036	-.150***	-.046	.097**	.063
		부모관계	.013	.094	.034	-.005	-.094**	-.064
		부모지위	-.137***	.113*	.109**	.196***	.140***	.099*
	연 계	가족신뢰	.173***	.105*	.048	.065	-.055	-.047
		자녀교육	.104*	-.107*	-.143***	-.001	.011	-.071
		가족참여	.376***	.046	-.165***	-.009	-.217***	-.263***
		가족관계	-.075	-.037	.129***	.065	-.071*	-.125**
단체 참여	수직단체				-.188**		.040	
	수평단체				.056		.110*	
개인 속성	성(남성)	-.185***	-.088	-.057	-.053	.272***	.141**	
	연령	.493***	.177**	.168***	.263***	.019	.150**	
	학력	.146***	-.135**	.309***	.155**	.075*	.061	
	소득	-.117**	.004	.047	.030	.181***	.171***	
	종교(유)	.089*	.103*	.025	.064	.216***	.223***	
R ²		.438	.098	.204	.203	.328	.324	
F		27.837***	3.849***	14.707***	7.243***	28.816***	14.105***	

***p < .001, **p < .01, *p < .05

수평적 단체참여 경우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은 9.8%이며, F 값은 3.849로 $p < 0.00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부모지위, 가족신뢰, 자녀교육, 연령, 학력, 종교 등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부모지위가 높고, 가족신뢰가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수평적 단체참여 수준

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자녀교육에 관심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수직적 단체참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투표참여의 경우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은 20.4%이며, F값은 14.707로 $p < 0.00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부모생존, 부모지위, 자녀교육, 가족참여, 가족관계, 연령, 학력 등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성장기 부모지위가 높고, 현재 가족관계가 좋으며, 연령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투표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성장기 부모가 생존하고, 자녀교육에 관심이 높으며, 가족행사 참여에 적극적일수록 투표참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족 사회자본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과 단체참여를 통한 간접적 영향을 동시에 살펴보기 위하여 보완적으로 시도된 분석결과에서는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이 20.3%이고, F값은 7.243으로 $p < 0.00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사회자본만을 기준으로 한 분석결과에 비해 부모생존, 자녀교육, 가족참여의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졌다. 단체참여 중에서는 수직적 단체참여가 투표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참여의 경우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은 32.8%이며, F값은 28.816으로 $p < 0.00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부모생존, 부모관계, 부모지위, 가족참여, 가족관계, 성, 학력, 소득, 종교 등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성장기 부모가 생존하고, 부모지위가 높고, 남성이 여성보다,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정치활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부모관계가 좋고, 가족행사 참여에 적극적일수록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정치활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족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과 단체참여를 통한 간접적 영향을 동시에 살펴보기 위하여 보완적으로 시도된 분석결과에서는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이 32.4%이고, F값은 14.105로 $p < 0.00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사회자본만을 기준으로 한 분석결과에 비해 부모생존, 학력의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졌고, 연령이 추가되었다. 단체참여 중에서는 수평적 단체참여가 정치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을 대상으로 한 이상의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가족 사회자본은 대체로 수직적 단체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족신뢰, 자녀교육, 가족참여가 수직적 단체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② 가족 사회자본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은 변수별 차이를 보인다. 가족관계는 투표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녀교육과 가족참여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③ 가족 사회자본은 정치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단, 신뢰는 수평적 단체참여를 통해 정치활동에 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④ 사회참여에 대한 가족 사회자본의 유형별 영향력에 있어서는 성장기와 현재 가족 사회자본이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V. 논의 및 결론

사회자본은 사람들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고, 강한 상호호혜의 원칙이 자리 잡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동질성을 보다 큰 범주의 사회집단으로 옮겨가게 함으로써 전체사회의 동질성 확보에 기초를 마련하여 사회통합을 용이하게 한다(Segaludin & Grootaert, 2000). Hughes 및 Stone(2002)는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적 동질성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다양성과 관련된 사회자본의 수준을 연구하고, 가족 유형이 사회 및 정부 차원의 활동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Croll(2004) 역시 가족 내 자녀에 대한 교육적 관심과 지도가 사회참여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가족 사회자본이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려 하였고, 다양한 가족 사회자본이 단체참여와 정치참여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였다. 가족 사회자본 역시 다른 사회자본과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의 하부구조 역할을 하기에 단체참여와 정치참여를 비롯한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다양한 가족 사회자본의 형태는 단체참여와 정치참여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장기 가족 사회자본에 따라 현재의 가족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부모생존, 부모관계, 부모지위에 따라 학력이나 소득이 높고, 가족신뢰, 자녀교육, 가족행사 참여, 가족관계 등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본에서는 학력만이 성장기 가족 사회자본의 모든 변수와 정(+)의 관계를 보였고, 성장기 가족 사회자본 중에서는 부모관계만이 현재 가족관계와 정(+)의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것은 Fukuyama(1995)가 말했듯이 한국이 일본보다 가족 중심적 성향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성장기 가족 사회자본이 현재 가족 사회자본과 연계성을 지닐 것이라는 가설 1을 한국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 가족 사회자본의 효과가 국가별 문화 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가족 사회자본이 단체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에 대해 한국에서는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 한국에서는 가족신뢰와 가족관계가 수직적 단체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족행사 참여가 수평적 단체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에서는 가족신뢰, 자녀교육, 가족행사 참여가 수직적 단체참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자녀교육은 수평적 단체 참여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모두 가족 사회자본이 수직적 단체참여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가족 사회자본의 성격에 비춰볼 때 납득이 간다. 즉 가족 사회자본의 성격이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한 폐쇄적이며 수직적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녀교육과 자녀 학습지도를 중심으로 시도된 Croll(2004)의 연구와 유사성을 지닌다. 단, Croll(2004)은 단체참여를 수직/수평적 단체참여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단체참여 성격에 따라 가족 사회자본의 영향이 달라진다는 점은 본 연구를 통한 새로운 발견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이 단체참여 성격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것에는 논의가 필요하다. 수평적 단체참여에 대한 영향에 있어 한국은 정(+), 일본은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우선 일본처럼 가족 사회자본이 수평적 단체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전통적 사회자본 이론가에 따르면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가족 사회자본을 폐쇄적이며 수직적인 사회자본으로 간주

하면 가족 사회자본이 수직적 단체참여뿐만 아니라 수평적 단체참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이것은 박희봉·이희창·조연상(2003)의 연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수평적 사회단체로 간주되는 한국의 각종 사회단체가 아직도 폐쇄적이며 수직적인 방법으로 구성원을 형성하고, 운영되기 때문에 수직적 사회단체와 수평적 사회단체에 대한 영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가족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에서는 가족신뢰, 자녀교육, 가족행사 참여 등 가족 사회자본이 투표참여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사회자본은 정치활동에도 기본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가족 사회자본 중에서 가족신뢰와 가족참여가 정치활동에 간접적으로는 긍정적이나 직접적인 관계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예외로 나타났다. 가족신뢰가 높고, 가족참여가 많은 사람의 정치활동이 낮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는 간다. 하지만 가족관계가 정치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대비할 때,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족 사회자본이 투표참여와 정치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예외적으로 가족관계는 투표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가족관계는 일반인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족신뢰와 일반인 신뢰가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점(박희봉·이희창, 2007)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예외가 이해는 된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를 제외하면 가족 사회자본의 폐쇄적, 수직적 경향이 정치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통적인 사회자본 이론에서 설명하는 논리와 같다.

이상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가족 사회자본이 단체참여와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본에서는 가족 사회자본이 단체참여 및 정치참여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으로 그 어떠한 가치판단을 하기에는 이르다. 하지만 한국 사회자본이 이익집단 성격의 공동체(Gesellschaft)가 아직 성립하기 전의 일차적인 공동체(Gemeinschaft) 중심의 관계 위주로 형성되는 단계일 수 있다는 해석은 할 수 있다. 이는 한국과 일본간의 단체참여와 정치활동의 관계 차이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즉 한국은 수직적 단체참여가

투표참여와 정치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수직적 단체참여는 투표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수평적 단체참여는 정치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시민사회 성숙도가 뒤처진다는 송경재(200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써 시민사회가 성숙할수록 사회참여에 대한 가족 사회자본의 영향력은 줄어들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가족 사회자본 역시 기본적으로 사회자본의 일환이기 때문에 가족을 중심으로 한 건전한 인간관계가 사회발전에 일조할 수 있다는 측면은 결코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일본의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또한 통계적으로도 가족 사회자본의 설명력(R²)이 한국의 경우 다소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가 가설 검증을 위주의 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는 관계로 변수별 영향력이 낮더라도 연구의 전반적인 의미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것지만 논문의 한계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탐색적 연구로서의 의의를 삼을 수는 있을 것이다. 보다 활발한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박희봉. (2002). 사회자본이론의 논점과 연구방향. 「정부학연구」, 8(1): 5-44.
- 박희봉·이희창. (2003). 가족 사회자본이 대인, 시민사회,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19(4): 1171-1198.
- 박희봉·이희창·조연상. (2003).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 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7(3): 45-66.
- 송경재. (2007). 동아시아 국가의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시민의식 조사를 중심으로. 「사회이론」, 가을/겨울: 1999-226.
- 이정선. (2001). 초등학교에 있어서 학업성공과 사회자본의 관계: 문화기술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4(3): 253-288.
- 이재훈·김경근. (2007). 가족 및 학교 내 사회자본과 학업성취. 「한국교육연구」, 13(2): 175-208.
- Almond, Gabriel A. & Verba, Sidney.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mato, P. R. & Booth, A. (1997). *A Generation at Risk: Growing Up in an Era of Family Upheava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oix, Carles and Daniel N. Posner. (1998). Social Capital: Explaining Its Origins and Effects on Government Performanc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4): 686-693.
- Briand, Michael K. (1998). Five Principles for a Community That Works. *National Civic Review*. 87(3): 237-251.
- Bubolz, Margaret M. (2001). Family as source, user, and builder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Socio-Economics*. 30: 129-131.
- Coleman, James S. (1990). *Foundation of Social Theory*.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Coleman, J. S. & Hoffer, T. (1987). *Public and Private High Schools: the impact of communities*. Basic Books.

- Croll P. (2004). Families, Social Capital and Educational Outcome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52(4): 390-416.
- Flavin, J. (2004). Employment Counseling, Housing Assistance and Aunt Yolanda?: How Strengthening Families' Social Capital Can Reduce Recidivism. *Criminology & Public Policy*. 3(2): 209-216.
- Fukuyama, Francis.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The Free Press.
- Fursteinberg Jr., F. F. & Hughes, M. E. (1995). Social Capital and Successful Development among At-Risk You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580-592.
- Hughes, Judy & Stone, Wendy. (2002). *Families, Social Capital and Citizenship Project. Fieldwork Report*.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 Inglehart, Ronald, (1999). *Trust, well-being and democracy*, Mark E. Warren (ed.), *Democracy and Tru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srael, G. D., Beaulieu, L. J., Hartless, G. (2001). The Influence of Family and Community Social Capital on Educational Achievement. *Rural Sociology*. 66(1): 43-68.
- Kaufman, Jason. (1999). Three Views of Associationalism in 19th-Century American: An Empirical Examin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4(5): 1296-1345.
- Krishna, Anirudh. (2001). *Enhancing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mocracies: What is the Role of Social Capital?* Working Papers Series San 01-03. Terry Sanford Institute, Duke University.
- Laub, J. H., Daniel, S. N., and Robert, J. S. (2001). Trajectories of Change in Criminal Offending: Good Marriages and the Desistance Proc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225-238.
- Li, S. D., Heide, D. P., and Doris, L. M. (2000). Drug Involvement,

- Lifestyles, and Criminal Activities among Probationers. *Journal of Drug Issues*. 30: 593-620.
- Meyers, M. A. (2003). Healthy Families, Healthy Community. *Healthcare Executive*. 18(3): 88.
- Newton, Kenneth. (1999).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in modern Europe. in Jan W. van Deth, et al., (eds). *Social Capital and European Democracy*. 3-24. London: Routledge.
- OECD. (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OECD. Paris.
- Potapchuk, William R., Croker, Jarle P. & Schechter, William H., Jr. (1997). Building Community with Social Capital: Chits and Clums or Chats with Change. *National Civic Review*. 86(2): 129-139.
- Putnam, Robert D. (1995).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olitical Science & Politics*. 28: 664-683.
- _____.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 Serageldin, Ismail & Grootaert, Christiaann. 2000. *Defin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ing View*. Partha Dasgupta & Ismail Serageldin, eds.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40-58.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Sun, Y. M. (1999). The Contextual Effects of Community Social Capital on Academic Performance. *Social Science Research*. 28: 423-426.
- Techman, J. D., Paasch, K., Carver, K. (1997). Social Capital and the Generation of Human Capital. *Social Forces* 75(4): 1343-1359.
- Tocqueville, Alexis de. (1984). *Democracy in America. renewed by Richard D. Heffner*. New York: Penguin Books.
- Walls, Allan, Crocker, Jarle P. & Schechter, Bill. (1998a).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Building: Part One. *National Civic Review*. 87(3): 253-271.
- Walls, Allan, Crocker, Jarle P. & Schechter, Bill. (1998b).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Building: Part Two. *National Civic Review*. 87(4): 317-336.

- Welsch, Alexander & Heying, Charles. (1999). Watershed Management and Community Building: A case Study of Portland Community Watershed Stewardship Program. *Administrative Theory & Praxis*. 21(1): 88-102.
- Winter, I. (2000). *Towards a Theorized Understanding of Family Life and Social Capital*. Melbourne, Australia: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 Wright, J. P., Gullen, F. T. & Miller, J. T. (2001). Family Social Capital and Delinquent Involvement.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9: 1-9.

K C I

к с і